

연중 제 13주일(교황주일)  
제1독서 : 1열왕 19, 16b, 19-21  
제2독서 : 갈라 5, 1, 13-18  
복 음 : 루가 9, 51-62

# 순정이

“쟁기를 잡고 뒤를 자주 돌아다 보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 들어 갈 자격이 없다.”  
(루가 9, 62)

## 쟁기를 잡고 뒤를 보지 말라!



김순태 신부 / 효자우전 천주교회

이번 우전 성당에서 치뤘던 바자회는 예상을 초월할만큼 성공을 이루었던 것 같다. 사실 그 바자회를 준비하면서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 줄 것인가 하고 걱정했었다. 그러나 연일 준비하는 모든 음식들이 그 수요를 감당해 내지 못하였다. 이번에 희생된 동물들께 죄송한(?) 일이지만, 개 50 마리, 닭 2천 마리가 되었다. 이제 나는 개나 닭들을 볼 면목도 없게 되었다. 또한 열 명 남짓한 사람들이 닷새 동안 10 가마나 넘는 김밥을 싸야 했다. 나는 이번 바자회를 치루면서 우리가 평소 먹고 나누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한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수없이 많은 일들에 매여 있다. 먹고 나누는 원초적인 일에서부터 각 개인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에 까지 우리는 그러한 일들로 발목이 잡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라는 물음으로 일단 검증해 보아야 한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어떤 율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한 가지 긴요한 부탁을 드렸다. 아버지 장례를 치루게 해달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장례의식은 인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당시 유대사회에서도 장례를 치루는 일은 하나의 선행으로 간주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 허락치 않았다. 어디에 놀러가서 먹자판을 벌리자는 것도 아니고 돈 벌러 가자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중요한 인간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치 않았을까? 그것은 분명 가치의 우선순위에 있다.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율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순간 주님을 놓쳐 버린다면, 그 율사는 영영 주님을 다시 만날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

엣그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암 환자를 방문하였다. 그분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지난날을 부질없이 살았다고 눈물지었다.

그렇지만 왜 부질없고 헛된 삶이 되겠는가? 아무리 쓸데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환자의 말에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사에 수없이 많은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일을 올바르게 병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삶이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일은 바로 그 부질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요소로 결론짓고 있는 것이다.

여 명

# 단식기도를 마치며...

존경하는 주교님과 신부님들, 그리고 염려해 주셨던 수도자와 평신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로써 지난 22일에 시작했던 단식기도를 마치려 합니다. 비록 저희가 주장한 것이 아무 것도 실현되지 않았지만, 단식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지극한 관심으로 저희를 염려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주교님의 요청에 순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명동 성당 공권력 투입사태가 서울교구만의 일이 아니고 양심수호의 사명을 잃어진 전교회의 일이라는 판단 아래 구성된 '전국사제시국대책위원회'에서 오늘 26일을 기점으로 단식을 종결하고 전국적으로 연대한 가운데 새로운 차원에서 대정부운동을 펼쳐가겠다는 결의에 따른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 속에서 보내고 있는 6월은 우리 민족이나 교회에 있어서 참으로 뜻깊은 달입니다. 명동 성당을 중심으로 시작된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가운데 문민정부가 들어설 기틀을 마련한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신의 암흑기를 신음 속에서 지내고 연이어 탄생한 쿠데타 정권의 총부리를 형제의 피값으로 넘어선 우리에게 문민정부의 탄생이란 오랜만에 맞보는 기쁨이었습니니다.

그러나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은 정권출발 이전에 3당 합당을 통해 부도덕한 세력과 결탁하며 국민의 우려를 사더니, 특유의 깜짝쇼와 언론장악으로 어느 새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던 군사정권과 조금도 다름없는 독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짓누르며 우뚝 서 있습니다. '성역없는 법 집행' 지극히 당연하고 또 정말 그래야만 될 것 같은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왜 역겨움을 느끼니까? 그것은 마땅히 지켜져야 할 성역과 있어서는 안 되는 성역이 뒤바뀐 채 적용되는 이런 논리를 우리의 양심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성당 안에서 외치던 오갈 데 없는 노조원들이 건전한 상식을 지닌 국민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길래 교회의 끈질긴 중재의 노력도 거부한 채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로 연행해야만 했습니까? 명백히 드러난 쿠데타 세력과 거기에 기댄 채 선량한 시민을 학살한 사람들, 그리고

부정하게 재산을 모아 해외에 빼돌린 사람들, 국가를 엄청난 혼란으로 빠뜨린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공권력은 왜 그들을 여전히 성역 안에서 보호하고 있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휘두르는 데는 체면도 양심도 없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정권을 신뢰하고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목자로 불리움을 받은 우리 사제들의 사명은 아흔아홉 마리의 양이 주는 안락함을 포기한 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험한 길을 나서는 결단(루가 15,5)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명동사태 처리과정중 들리는 '이제는 교회도 중산층과 가진 자들의 대변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적인 우려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식기도를 마치는 오늘부터 우리는 방향을 바꿔 새로운 대응을 시작할 것입니다. 줄곧 해왔던 성소유린 사태에 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문민'을 가장한 독재에 짓눌려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민중을 위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할 것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아모 5,24)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들의 단식기도 동안 방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95년 6월26일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 숲정이 산책



주님이 계시기에

# 주님과 함께 배우며 가르치며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참 건강합니다. 물론 잠시 방황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춘기를 보내는 많은 아이들의 경우 곧 자신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교리교육의 힘이지요.”

지난 6월6일 율호관에서 있었던 교리교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장기근속 표창을 받은 김순옥(폴리나·47세)씨는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다. 군산시 나운동 성당 초등부 교장선생님인 그녀의 손에는 항상 손때 묻은 교사수첩이 있다. 거기에는 교리 연간 계획서를 비롯하여 각 학년의 학생 명단, 행사 계획, 교리교사들의 개인신상까지 꼼꼼하게 담겨져 있다. 260여 명의 어린 학생과 16명의 교사, 이들과 함께 그녀는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

### 개인 신앙의 역사는?

친정 어머니께서는 아주 열심한 신자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어머니의 모습은 새벽녘에 우리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시던 모습입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신앙으로 국민학교 6학년 때 첫영성체를 했습니다. 그 뒤, 외인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시댁인 군산으로 옮겨와 두 아이를 낳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혹독했던 시집살이 속에서도 친정어머니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니다. 외인이었던 시댁식구들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속속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보다는 보여 주려고 합니다. 지금 대학생이 된 딸 도영이는 고3시절에도 주일미사를 꺾하지 않았습니니다. 일요일 자율학습도 중요하지만, 하느님의 자녀로 사는 일 또한 중요함을 스스로 깨닫게 된 까닭이지요. 남편은 서울로 진학한 데려사를 데리고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을 찾아 안내해 주고 그곳에서 엄마처럼 교리교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니다.

으레 고3이 되면 성당을 쓴다고 말하는 현실을 상기하면서 부모야말로 자녀들의 가장 좋은 교사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요즘 부쩍 맛을 내고 성당에 가는 아들 경선이를 보면서도 별다른 염려를 하지 않는 까닭은, 도영이 역시도 성당활동을 하면서 사춘기를 슬기롭게 보냈던 때문이라고 한다.

### 교리교육의 어려움은?

부모들의 무관심이지요.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



주일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김순옥씨

다. 물론 그럴 때마다 일일이 전화하고 만나고 하면서 생각을 바꾸도록 하지만, 부모 자신들이 교리교육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교안 작성에서 지도에까지 신경을 씁니다. “오늘 무얼 배웠니?”하고 물으면 “이것이요”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아이들이 조용할 때는 노래할 때와 먹을 때였다. 그런 아이들을 진정시켜서 하느님 사랑을 심어야 하는 교리교사들의 노고가 새삼 놀랍다. 하이소프라노로 질러대는 아이들 소리와 함께 미사를 마치고 교사회합까지가 그녀의 공적인 일이다. 결석한 아이들 점검과 연락, 다음 주일의 행사 및 지도 방안, 어려움 등을 서로 나누며 한 주일을 마감한다고 한다.

### 본당에서 다른 활동은?

저에게는 교리교사만으로도 벅합니다. 그래서 레지오 활동도 평단원으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저도 익숙해졌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인 경선이가 대학교 갈 때까지 하고 그만 둘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오래 같은 일을 하면 편하고 수월하긴 하지만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는 애령회 일을 하고 싶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고 했다가!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기 위해 내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 맑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본당의 교리교사이기 전에 가정 안에서 이미 훌륭한 교사인 그녀의 가정은 작은 교회요,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의 전형임을 실감한다.

• 취재 : 형임순(오털리아)



초·중·고 여름 신앙학교 프로그램

# 주님과 함께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 진다는 의미에서 방학을 무척 기다렸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타율에 의해 움직이기 보다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매력에 방학이라는 시간은 어린이와 중·고등학생에게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건-보충 수업, 부모의 간섭 등-으로 인해 방학 동안의 자율적인 시간 활용보다는 다만 며칠이라도 편하게 놀기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것이 학생들의 바람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교구가 여름방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금년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교재와 중·고등부 여름 교리교육 교재 내용을 세분화하여 요점을 소개한다.

### 1.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금년 95년 신앙학교 교리교육의 주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제로 신앙인 특히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두 제자와 닮은 점을 알고 앞으로써 달라진 모습에 역점을 두고 만들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도달한 곳이 바로 새로운 복음화의 목적지다. 우리는 물론 어린이들로 하여금 절망과 슬픔을 이기고 희망과 기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이 바로 우리 교리교사들의 사명이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서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불행한 일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려 준다.

따라서 '95년 신앙학교 교재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 가족, 친구 등의 공동체를 알리고 성서를 가까이할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각 학년별 교재가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었으므로 참고적으로 3, 4학년 교재 내용을 소개한다.

### 교재 내용

첫째날 : 안녕하세요, 예수님-어린이들의 평상시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예수님과 만나다.

둘째날 : 내 마음에 사랑이-기도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인 파견을 소개한 후 어린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한다.

셋째날 : 예수님 원손, 나 오른손-"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넷째날 : 예수님, 전화 왔어요-천국에 전화를 해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과 더욱 친해지도록 한다.

### 2. 중·고등부 여름 교리교육

중·고등부의 여름 교리교육은 특별 교리와 캠프로 나누어 실시된다. 여름 특별 교리는 학생들의 교리지식

### 쌍방울 효자 전문점

이 오 환(오 환)  
양 진 희(아나다시아)

효자 테니스 앞  
☎ 222-1723

### LG(금성)에어콘 총판

· 에어컨, 환온습기, 공기정화기  
· 온풍기, 대형냉장고, 중앙집중식냉·난방  
원종삼(발라바) · 원승연(도밍고)

삼화공조 ☎(0652)251-0190~2  
휴대폰 011-653-2346

###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C-T촬영 · 일반X-선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촬영  
유방촬영 · 성인병검진 · 자동차적성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 (주) 한국 삼베 전복총판

최고급 전복수의/Q마크획득원단제품  
삼베양말/무좀예방,땀흡수타월,무취  
이경근(안토니오) 임경란(수산나)  
전주 서부 우회도로 천하장사 옆  
☎(0652)212-6639,7046  
호출기 012-682-6631

# 길을 걸으며

과 생활 실천을 돕기 위한 이론적인 내용이며 캠프는 체험을 통한 신앙적 성숙을 이끌어 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95년도 특별 교리와 캠프의 내용은 모두 교구 사목지침인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라는 주제로 짜여져 있다.

## (1) 여름 특별 교리교재의 내용

무책임한 경제 성장과 교육의 결과로 인한 인간성 상실을 깨닫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1과 어긋난 인간성 :**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장애물을 만나 넘어지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지만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놓치지 않는 일이 중요함을 깨닫게 한다.

**제2과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 우리 :**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신데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 아무런 희망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부활하심을 깨닫게 해 준다.

**제3과 주님과 함께 :** 모든 희망을 잃고 걸어가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리게 해 주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뵈는 순간 제자들은 절망과 불신을 떨쳐 버리고 희망과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남을 알게 한다.

**제4과 새로운 곳에 도달 :** 흠어졌던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천주교 전주교구 교육국 제공

증거하고 선포한다.

## (2) 여름캠프

**첫째날 :** "나를 보고야 믿느냐" 그분이 걸으신 길을 같이 걸어 본다.

**둘째날 :**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그분의 말씀을 직접 체험하는 하루.

**셋째날 :**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고 부활하심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신앙적 성숙을 이루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한다.

짧고 아쉽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소중하고 그러면서도 쪼갤 수 없는 시간 속에 신앙 학교와 캠프가 끼어 있어 추억이 만들어지고 친구와 만나고 자연과 만나며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체험에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 참여를 기대한다.



# 요십이(1139) 김병오

민자당이요? 귀당에서 남로당 입당설이었다고 공격한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었으니...

남로당 입당설이 있는 사람을 찍어준 사람도 사상을 의심하여

수사해서 처벌할 계획은 없는지요?

## 변원구 한의원

변원구(예로니모)  
허정자(수산나)  
인후동 모래내 다리옆  
☎ 252-1783  
253-6355~6

##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 늘푸른집

무공해 물비누  
천연샴, 아기샴, 샴이랑, 맑은샴  
\*우리밀 제품 판매 개시!  
전경자(베로니카)  
☎ 86-2050  
호출기 012-682-6543

## 영창피아노 전주중앙대리점

· 36개월 할부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 A/S 전문점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다가동 파출소 옆  
☎ 84-6085, 223-5823

##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オル간,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담당  
동서 판통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폰소) · 황진숙(안젤라)  
☎ 88-7717~8

## 한일씽크

씽크대 제작 및 도소매  
박신근(분도)  
김순동(로사)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372  
☎ (0652) 253-5621  
(0653) 52-7283

## 차량대여 및 임대전문 영업개시 (유) 국민렌트카

· 각종 차량을 최신형으로 완비,  
가격, 서비스 모든 면에 우수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원에서 진안선 중간 럭키파워 앞  
☎ 본사 : 242-4442, 242-4717-9  
군산영업소 : (0654) 467-6578~9

특 집

# 기다려지는 여름 신앙학교



신재운(마르티노)  
복자 성당(고1)

뜨겁기만 했던 지난 여름, 3박4일 여정에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뒤로 하고, 하계 수련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을 나서서 내 마음은 설레이기만 했다.

치밀하게 준비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우리 마음도 한 겹씩 옷을 벗었다. 고집, 이기심, 미움의 옷을 벗으며 형, 누나, 동생들이 한층 가깝고 소중해졌다. 달빛 아래서의 '십자가의 길', 담력시험의 무서움과 재미, 여러 프로그램의 공통된 주제는 '사랑'이었다. 위선과 편견의 사회를 떠나 자연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굳건해짐을 느꼈다. 내가 얼마나 가정을 무시하고 가족간에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하는 시간도 있어서 그 어떤 수련회보다 뜻 깊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짧은 일정과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되고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좋은 시간이었다.

올 여름 수련회를 기다린다. 학교에서 소홀했던 여러 가지를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책상과 교과서로 굳어진 마음을 열고 신나게 웃고 신나게 소리치며 뜨겁게 감동하는 시간이었으면 싶다.



정운숙(루시아)  
평화동 성당(중1)

여름. 모든 사람들을 열기에 활활 타오르게 하는 계절이다.

이 계절을 나는 손꼽아 기다렸다. 바로 중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맞이하는 산간학교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민학교 때 했던 산간학교보다 다른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까? 생각하니 기다려지는 마음을 억제할 길이 없었다.

작년 산간학교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내 마음에 남아있다.

밤 9시. 온 세상은 암흑도시 같았다. '담력 기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마지막 코스로 무덤가에 갔다.

선생님께서 먼저 유언을 쓰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정말 죽는다면'하고 생각하니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서 '하느님을 어떻게 뵈지?'하는 두려움이 들었다.

관 속에 들어갔다 오는 것도 했는데 처음엔 굉장히 무서웠지만 곧 나오는다는 희망에 조금이나마 괜찮았다.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번 여름에 있을 산간학교를 통해서 하느님 사랑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수연(데레사)  
중앙 성당(국5)

나는 지난 여름방학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었다. 그것은 여름 성경학교를 갔었기 때문이다.

가정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진안 줄포에 있는 조그만 학교에 도착, 짐을 풀고 운동장에 모여 게임을 하며 재미있게 놀았다.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하나가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다.

저녁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반성을 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 하다가 선생님을 물 속에 빠뜨리면서 재미있게 놀았다. 참으로 즐겁고 신났다.

자연을 통해서 또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

올해도 여름 산간학교가 무척 기다려진다.



## 효자한의원

한방각과, 비만, 알러지성 체질, 요실금 치료

박우순(유스티노)  
유혜경(루시아)

효자성당 ↔ 목화APT 사거리

☎(0652)222-3129, 226-1075

## 이전개업 토성한의원

소아과, 내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물리요법

공민택(사무엘)

박순실(라파엘라)

중화산동 사거리

비사벌아파트 상가 2층

☎ 226-1101

## 최첨단 부엌가구 ENEX 전북종합전시장

박영근(공사기)  
장정신(젼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75-0524

## 자연산 활어 전문점

23호 회 센터

도다리, 농어, 광어

〈차량대기, 전화주문 신속배달〉

최금석(요셉) 윤은숙(소피아)

송천동 직판시장 2층

☎ 254-7129

호출기 012-682-0046



**교 구 소 식**

- ❖ 교황주일 2차 헌금
  - 때 : 7월2일(일)
  - 장소 : 각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 ❖ 용안 성당 기공식
  - 때 : 7월9일(일) 오전10시30분
  - 주례 : 이병호 주교
- ❖ 구역(반)장 연수회
  - 7월4일(화) 오전10시 인후동 성당 (동·서전주 지구)
  - 7월5일(수) 오전10시 노송동 성당 (남·북전주 지구)
  - 7월7일(금) 오전10시 오룡동 성당 (군산 지구)
- ❖ 천호 피정 안내
  - 때 : 7월4일(화)
  - 주제 :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
  - 감사 : 이상섭 신부
  - 문의 : 73-6600
- ❖ 사제 평의회
  - 때 : 7월6일(목) 오전10시
- ❖ 제3기 레지오 간부학교
  - 때 : 7월8일~9일 오후2시30분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 ❖ 사회복지 월례미사
  - 때 : 7월3일(월) 오전10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 빈첸시오 교구 중앙이사회
  - 때 : 7월8일(토) 오후3시
  - 장소 : 전북 빈첸시오의 집(양노원)
- ❖ 성빈첸시오 전국중앙상임이사회 개최
  - 때 : 7월8일~9일 오후5시
  - 장소 : 전북 빈첸시오의 집(양노원)
  - 문의 : (0681)33-9666, 34-5400
- ❖ 신학교 하계연수
  - 때 : 7월9일~11일
  - 장소 : 관촌 사선대
- ❖ 축! 영명
  - 3일(성토마스)서용복, 김정원, 이재 후, 이종원, 김영태, 백승호 신부님
  - 5일(성김대건 안드레아) 김진소 신부님
- ❖ 수녀연합회
  - 때 : 7월11일(화) 오전10시
  - 장소 : 가톨릭센터

■ 권해드리는 책 ■

- 꽃이 되고 빛이 되어  
이충우 / 3,500원 / 바오로딸  
이 시집은 우리 나라 성지를 두루 순례하며 느낀 영적인 감동을 시로 엮은 책이다. 순교자에 대한 글을 탐독하고 선조들이 믿음과 진리를 증거한 행적을 찾아 쓴 묵상과 글들은 우리의 신앙을 고취시켜 준다.
-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김현옥 / 4,000원 / 바오로딸  
일상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경험했던 것과 작가 자신의 명상, 마음을 스치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순간을 포착하여 부드럽고 섬세한 영적 통찰로 그려나가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찬미, 이웃을 통한 사랑과 용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뇌와 환희들이 진솔한 고백의 언어로 엮어져 독자로 하여금 진한 감동을 맛보게 한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녹색 소비자여야 한다

이른바 '그린상품'이 범람하고 있다. 그린 컴퓨터, 그린 냉장고, 그린 아파트, 그린 소주..... 같은 제품이라도 무공해니 환경보호니, 바이오니 하는 기능이 있어야 좋은 제품이라고 믿는 것이 요즘의 소비자이다. 소비자들에게서 '그린 마인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감시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고품격' 운운하며 백 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고 땅에 남아 오염원이 될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우유, 두·세겹 종이와 비닐, 하물며 스티로폼로 날날이 과도하게 포장돼 있는 상품들, 실제 우리 환경 어느 부분을 보호하는 것인지 확인할 도리없는 상품들, '환경상품'을 내놓았다고 하는 기업의 폐수방출 등..... 아직 기업자체의 생산과정은 물론 시장에 내놓은 상품들의 환경점수도 낙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시상·팔상 체질 감별**  
<태양, 소양, 태음, 소음>  
권 재 갑(다두)  
정 원 미(클라우드미아)  
중화산동2가 과출소 맞은편  
☎ (0652)224-6207~9  
황명사상간강회

능력별 소수 정예전문  
**전북 청솔학원**  
고급·대입종합반, 중·고 그룹반  
원 장 김낙필(시문)  
기획실장 손 문(요한)  
교무부장 문 철(임미누엘)  
☎ 84-1030, 2030, 3477

이 전  
**코아 에스에스 패션**  
· 로가디스, 이브생로망, 위크엔드  
· 버킹검, 아스트라, 빌트모아  
· 런던포그, 크레센도, 포렌모아  
정수철(시문)·강숙기(짓다)  
코아백화점 4층  
☎86-2884, 80-1404

**PUMA 효자점**  
스포츠 의류, 신발류  
가방, 수영복  
장 재 식(베드로)  
원 숙 영(가티리나)  
효자 성당←→크리스탈 불링장  
☎ 225-9912

**양봉 꿀 판매**  
· 생산자 : 이화춘, 이순덕(안젤라)  
· 종류 : 로얄제리, 아카시아, 밤, 잡화  
· 주문연락처 :  
황병찬(필립보) (0653)841-8131  
김덕순(아네스) (0653)856-0244  
박진규(글라라) (0653) 53-6735  
이순덕(안젤라) (0653)858-7835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13주일  
◎ 교황주일: 2차헌금 있음
1. 축! 세례: 하느님의 자녀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 특별기도 및 성체강복: 6일 저녁미사 후
  3. 병자 봉성체: 7일 오전중 ※ 사무실에 신청
  4. 사목회 상임: 7일 저녁미사 후
  5. 구역(반)회장 연수회: 5일 전 10시 본당(새벽미사 있음)
  6. 엠마오 성서대화(사도행전):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전 10시에 있음
  7. 비품 특별헌금 봉헌액: 박순덕, 김용우, 익명, 조광배, 김금순 - 각 2만원. 임평식, 이종관, 최규대, 이기배, 익명, 전도열 - 각 1만원. 박기석, 강도숙, 황원길, 이정애, 서남석 - 각 5만원. 이창남 - 30만원. 익명 - 1만원. 박일남, 조해형 - 각 3만원. \* 소계 - 132만원 \* 누계 - 3천245만3376원
  8. 모임: ① 울뜨레아(2일 장엄미사 후) ② 성심회, 자모회(5일 어머니미사 후) ③ 반회장 모임(6일 전 10시30분) ④ 장우회(9일 장엄미사 후)
  9. 금주 침소: 인후 1, 2번  
차주 침소: 인후 4, 6번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1. 오늘은 교황주일: 2차헌금
  2. 반장 3차 연수: 5일, 장소-노송 성당, 오전 10시
  3. 성체 강복: 6일 저녁미사 후
  4. 장수녀님 본원 연수: 6일~8일
  5. 모임: 성우회, 대건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사목회 - 오늘 저녁미사 후  
울뜨레아 - 4일(화) 저녁미사 후  
구역분과회 - 4일(화) 오전 10시  
여성분과회 - 8일(토) 오전 10시  
요셉회 - 9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꾸리아 - 9일(다음주일) 오후 2시  
청년회 - 9일(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6. 전입을 환영합니다: 채정석(배남시오) 태평동 성당 침소: 7월8일(토) - 바다의 별Pr. 사도의 모후Pr.  
금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지해룡 부부 봉헌-신태섭 가족  
차주 전례: 해설-허정식. 독서-오교성 부부 봉헌-황길평 가족
- 지난주 봉헌금: 465,500원  
□ 감사헌금: 김판관(20,000원) 첫영성체(220,000원)

**\* 상 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복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오늘은 교황 주일입니다(연중 제13주일)  
◎ 오늘은 교황을 위한 기도과 2차헌금 있습니다.  
◎ 매월 첫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1. 모임: ① 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Cu. - 공식미사 후 ② 안나회 - 다음주일
  2. 구역집 연수회: 5일(수) 10시, 노송동 성당
  3. 지속적인 성체조배: 6일(목) 저녁미사 후
  4. 감사!: 성구 구입 - 오 루시아 3만원, 전선풍 2만원
  5. 성당 침소: 금주-사랑하옵 어머니Pr. 차주-황담의 궁전Pr.
  6. 금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 최원규 ② 김미남 봉헌-박귀철 가정  
차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 양주태 ② 우정숙 ③ 김봉길 가정
- 지난주 봉헌금: 370,100원 □ 교무금: 405,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

- ◎ 오늘은 교황주일입니다. 2차헌금 있습니다.
1. 금주 모임 안내: 사목회 - 7월4일(화요일) 후 8시, 장소-회합실  
꾸리아 - 오늘 공식미사 후 오후 2시, 장소-강당  
청년회 - 오늘 저녁미사 후, 오후 8시, 장소-회합실  
반장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장소-유아방  
자모회 - 7월6일(목요일) 레지오 회합 후, 장소-강당
  2. 차주 모임: 울뜨레아 - 7월13일(목요일) 후 6시30분, 장소-강당  
성심회 - 7월12일(수요일) 전 10시30분  
프란치스코삼회 - 7월9일(일요일) 후 2시
  3. 축!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7월3일(일요일)
  4. 예비자 교리 안내: 매주 일요일 후 5시30분, 장소-1회합실
  5. 구역(반)장 연수회: 7월5일(수요일) 오전 10시, 장소-노송 성당
  6. 레지오 간부 교육: 7월8일(토)~9일(일) 장소-천호 피정 집
  7. 침소 안내: 금주 - 평화의 모후  
차주 - 정의의 동정녀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

- ◎ 연중 제13주일  
◎ 애덕의 모후 꾸리아 창단식: 7월2일(일) 오후 2시 교육관
1. 금주: ① 교황주일 2차헌금 ② 재속클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③ 요셉회(후 6시) ④ 울뜨레아(후 8시)
  2. 빼엠티회: 5일(전 10시)
  3. 성체 강복 및 조배: 6일(전 10시)
  4. 성모성심회: 6일(후 3시)
  5. 병자 봉성체: 7일(후 2시)
  6. 유아 세례: 8일(후 3시)
  7. 다비드회: 8일(후 3시)
  8. 구역반장 연수회: 5일(전 10시) - 노송동 성당
  9. 레지오 간부교육: 8일~9일(천호 피정 집)
  10. 차주: ① 사목회(후 8시) ② 자모회(전 10시) ③ 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11. 성미리아 꼬미시온 간부개편: 부단장-양원홍(이리네) 서기-전병규(마티아)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김삼

- ◎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맥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사하여라"(루가 10, 15) 교황주일: 특별기도와 2차헌금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 5일 오전 11시미사, 저녁 7시30분 미사
1. 구역반 회장 연수회: 4일 오전 10시30분, 미방문 전입교우교
  2. 남전주 지구 구역반 회장 연수: 5일 오전 9시30분, 노송동 본
  3. L.M 간부학교: 8일~9일, 천호 후 2시 접수: 이장수, 신행송, 송병우, 박영숙, 김정곤
  4. 성시간 성체강복: 6일 오후 7시30분
  5. 사목회와 제단체재 연서 '여름성령학교 및 수련회' 회의: 5일 저녁 8시
  6. 형제 기도회: 4일 저녁 8시 8-1, 2번. 7일 저녁 8시 8-3, 4번
  7. 반 미사: 4일 오후 3시 2-5, 6번, 6일 오후 3시 1-6, 7일 오후 3시 9-5(부용집)
  8. 첫 고백성사: 8일 오후 5시, 성체 성혈 축일 세례자
  9. 회의: 꾸리아 - 오늘 오후 2시30분, 성지회 - 공식미사 후 부녀회 - 5일 어머니미사 후, 성체회 - 9일 공식미사 후 청년회 - 9일 저녁미사 후
  10. 이발 무료 봉사: 9일 오전 9시~18시, 이발소 사무실 뒷편
  11. 구대 가족 소풍: 3일 오전 10시, 용무는 4일부터
  12. 첫영성체 어린이 자모일동: 390, 390원, 전축헌금 봉헌
  13. 평화종합카센터(팔복동공단 주유소 옆): 개입헌금 50만원 이상회 형제 감사합니다.